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국가도시장도답이아니다

사회복지에관한아나키스트적관점

스티브밀렛

스티브밀렛
국가도시장도답이아니다
사회복지에관한아나키스트적관점
1997

From Chapter 3 of Twenty-First Century Anarchism: Unorthodox
Ideas for a New Millennium (edited by Jon Purkis and James
Bowen)

kr.theanarchistlibrary.org

1997

차례

개론	3
인용	3
서문	3
역사와기원	4
복지국의근간	4
현대복지국의발전	5
전후복지국가	6
복지국의효과	7
복지와아나키	9
국가에대한반대 - 우파? 좌파?	9
국가를고발한다.	11
사회복지와아나키스트적대안	12
여기에서저기까지	13
결론	14

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복지 국가의 손에 있는 이상, 복지는 사회통제의 다른 형태로 전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인용한 크포트킨의 말처럼, 우리의 복지를 국가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한 사회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원자적인 개인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신화에 불과하다. 복지국가에서, 부유한 자가 국가 주도 복지로부터 가장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 의존과 비의존의 신화어딘가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즉 돌봄과 협동을 위한 우리의 역량은 실종된다.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국가의 실패는 사회복지라는 개념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부인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복지는 권력의 분배와 불균등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렇기에 국가 주도 복지는 언제나 최소한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는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도 복지를 삭감하는 것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안이 없는 시장은 가라앉거나 헤엄치거나의 양자택일일 뿐이다. 그리고 가라앉는 것은 빈곤, 궁핍, 심지어 죽음을 의미한다. 국가로부터 복지를 해방하는 시도를 우파 자유 시장주의자들에게 말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에 대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시급한 적은 없었다.

근거해만연한계급체계에도전할수있는수단이기때문이다. 이에근거하여래디컬페미니스트들은전통적으로분리주의적이고여성에게만주어지는복지를주장하는것이‘복지의제공자와수혜자의관계를비계급체제적이고민주적인복지구조안에서새롭게구성하여다시금구식이고계급적인복지기구에도전하기위함’이라고말한다. 과거에, 앞서간략히언급한실험과프로젝트들은정치적전망의부족으로약화되어왔다. 이그룹들이특정한문제를직면하여모일때(일반적으로공동체운동의경우에그러했는데) 그주된기능은이미구성된권위로부터무언가를얻어내기위한것이었다. 결과적으로이들은그목적달성하면(혹은실패하면) 해산했고, 공동체에주어지는서비스의구조를급진적으로바꾸려는시도를하지못했다. 그리고보다장기적인프로젝트사업은급진적사회비평에이르지못하였고, 이는다른프로젝트와연계하여진정으로국가권력을상쇄할세력을만들지못하게하였다. 두경우모두에있어각그룹들은단지변화의가능성만을생각하는것이아니라, 그들이위치하고있는자유주의적전통에대해서도생각해야한다. 더욱광범위하고, 대단히중요한사회적, 정치적인제들이작업을시작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몇몇캐나다활동가들은다음과같이제안한다.

“다양한시민의조직이사회에대한포괄적전망을가지고, 그들의특정한투쟁을이에연관시키는것은중요하다. 식량협동조합, 주거협동조합, 생태주의그룹등은새로운사회적연결망을구성하고, 이를통해새로운사회의근간을놓을수있다. 집단적행동을선택하기위한시민의자주성의증대는노동계급이그들의동네를, 그들의도시를장악하는것을공고히하는데필요불가결한것이다.”

이러한접근방식은국가권력을무력화하기위한새로운활동태와이론의가능성을제시한다. 이러한활동은매우어려울것이다. 필요한자원을확보하는것도그러할것이고, 국가주도복지가점점더납세자의집으로보이기시작하면서, 복지수혜자들에게는장기적으로포기외의선택지가없을것이라는것에서더욱그러하다. 하지만이것은국가주의적선택지의한계속에서, 포기보다는나은대안임에는분명하다. 그리고이것은진정으로비국가주의적인복지공동체를, 정치꾼들과관료와전문가들에의존하지않는공동체의건설을시작하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다시금크로포트킨을인용하자면, “국가가존속하여개인과지역의생활을분쇄하고, 모든인간의행동을장악하거나 … 국가의파괴를통해개인과집단의생동적인주도권과자유로운합의의원칙에기반하여수천개의중심에서새로운삶을시작하거나. 선택은당신의것이다!”

결론

아나키스트들에게자본주의를극복하려는좌파의시도가실패한것이국가의성장으로이어졌다는것은역설적으로보인다. 자치와권한부여는더이상관료의

개론

1 장에서나는영국에서복지국가개념의발전을요약하고, 그발전도상에서회적통제가중요한동인이었음을강조할것이다. 그리고나는국가가복지에개입함으로써누가이득을보는것인지를실증할것이다. 나는복지가권력기구로만취급될수있음을제안하고, 국가로부터분리된참여적대안의당위성뿐만아니라, 이러한대안이국가가없는사회의창조가시작될수있음을보일것이다.

인용

국가가사회의모든기능을흡수하는것은, 견잡을수없고편협한개인주의를필연적으로옹호한다. 시민들중국가에대한무를지는사람이늘어날수록, 그들은자연스럽게서로에대한책임으로부터벗어나게한다.

페트르크로포트킨, < 상호부조 >

영속적으로계속성장하는무자비한정치적관료제권력이인간의삶을요람에서무덤까지감시하고, 보호한다. 그리고인간의연대적협동의앞길에커다란장애물을두고새로운발전의가능성을전부배제한다.

루돌프록커, < 아나키즘적조합주의: 이론과실천 >

서문

20 세기는국가개입주의의시대였다. 그리고그시대는감시와규제를통해인민생활의많은측면에영향을주는시대다. 이침범의상당부분은, 인민들이다른대안은더끔찍할거라믿기에정당화된다. 인민들은국가가많은측면에서이득이된다는것을믿는다. 특히국가주도복지에있어서그러했다. 그리고이러한복지국가의상은전후사회민주주의적합의에의한성취로떠받들어졌다. 복지국가의다양한기동들이세워졌을때, 그동인은뚜렷한하나만이있는것은아니었지만그‘진보적’성격이라는것, 즉사회적응집력을신장하고, 자본주의의가장끔찍한불평등을상쇄한다는것은타우니, 티트머스, 크로스랜드의레토릭의일부였다. 이들은국가를사회정의신장의수단으로보았고, 복지국가가영국을사회주의도상에올려둔다고보았다. 모든사람들이좌파의더급진적인관점을공유한것은아니었기에, 복지국가는언제나유의미한지지를받아왔다. 많은사람들은사회서비스에대한공적지출은복지에있어서일정부부분평등을건설했다고믿는다. 복지국가에대한의구

심은주로우파로부터제기되었다. 이들은공적지출을줄이고부자들이자기돈을 마음대로쓸수있는능력을증대시키고자했다. 하지만, 더자세히들여다보면, 복지국가는처음에바라보았던것보다평등, 권한, 사회정의를덜제공한다. 국가주도복지권력을가진자의성공적인사회통제수단으로써, 평등과정의의실현에는거의기여하지않는다.

역사와기원

복지국가의근간

오늘날의복지국가는 300 년전 (15 세기말 ~16 세기) 에민족국가의발흥과 확립이후사회통제를목적으로이루어진입법에근간하고있다. 중세상호부조적 공동체의붕괴와급격한인구증가는 16-17 세기에갓등장한정부들에게새롭고 두려운문제가되었다. 거지와부랑자들의수가늘어나면서, 사회적불안에대한우려가도덕적무감과결합하여방임주의를진압했다. 일반적으로 2 차대전의집 단경험에서발흥했다여겨지는복지국가에대한논의를 300 년전에서부터시작 하는것이이상해보일지도모른다. 하지만영국에는복지에대한국가개입의긴역사가있다. 그시작은 1572 년의구빈법에서시작한다하겠다. 튜더왕조시기부터 시작된영국의국가복지정책에대한작가는'1700 년영국을복지국가라부르는 것은전혀시대적오기가아닐것이다.'라결론지은바있다.

초기구빈법의입법은지역교구들이빈자를구원하기위해수입을닐권리를 주었다. 그와동시에구걸을금지하고, 부랑에대한처벌을명문화했다. 이에더하여구빈원의건립이시작되었다. 1610 년, 구빈원의설립이'도적과무법자와게으를거지들과다른게으르고무질서한자들을수감하고, 교정하며, 일하도록만들기위'한목적으로의무화된이후그수는더늘어났다. 16 세기후반, 의회는지도층의 행동에대해관대한입장을취하기시작했다. 이를테면의회는대금업을합법화하고, '하위질서'의예외와사회적행동을규율하는법령들을통과시켰다. 입법자들이도덕과공공질서에목적두고있었다는것은명확해졌다. '이모든것은구빈법이경제적조정자가아니라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조정자로설계되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이때비로소자신의잘못이없어도일자리를찾지못하는당당한, 혹은노동하는빈민과나태하거나위험한빈민사이의차이가생겨났다. 후자에대한집착은간간히부랑자들이안정과질서를해할것이라는위협에대한신경질적두려움으로드러났다. 이두려움은부랑자들이실제로가져오는반란의위협보다는, 사회적낙인과부랑자들의경범죄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분할은'납세자'와'수혜자'라는범주를낳은지역예산으로인해더격화되었다. 이두집단사이의경계선은유동

들이그생산물에동등한권리를가진다면말이다. 자원의다름이여전히존재하겠지만, 이것은연방적협력체를통해해결할수있다.

전문성과기술은자본주의와국가가제공한틀바깥을상상하기어려운영역이다. 그리고이영역에대한회의를표하는것은많은사람들에게아나키스트들이과거회귀적태도를취하고있다고보이게한다. 하지만아니다. 아나키즘은자주산업시대의전의'황금기'로의회귀를원하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 그리고이러한발상을하는아나키스트들이일부있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대부분의경우, 이러한비판은올바르지않다. 아나키스트들이그들이제시하는대안의가능성을보이기위해, 그리고더'아나키스트적'인조직의방식이결코'인간의본성'에반하는것이아니고, 오히려대부분의문화에서특정시기에번성했음을제시하기위해역사를돌아보는것은사실이다. 자본주의의대리인들이호선한합리성의도구들은과학과기술의발전에있어본의정도를증가시켜왔다. 과학의지속적인적용은결과적으로더많은사람을죽이는최적의방식을만드러냈다. 그리고무엇보다과학기술을평범한사람들로부터분리시켜엘리트들의손에쥐어주는것은결국직간접적인통제와이윤의수단을쥐어준것과같다.

이러함에도불구하고, 어떠한것, 특정한발견, 방법론, 노동의형태의사용과 집행을비판함에있어발견, 방법론등의그자체를비판할필요는없다. 앞서말했듯이, 그구분선은언제나명확하지는않다. 과학적이고기술적인발전은일반적으로 윤리의문제를중점적으로고려하지는않기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과기술이이성의도구으로써윤리적이고생태적인맥락에놓였을때, 이것은인류가그문제를해결하기위한최고의방식이된다. 예방은치료보다낫기에, 만약우리가보다생태적으로조화로운방식으로살게된다면, 우리가고통받는많은질병들은사라질것이다. 그리고이것은궁극적으로공중보건이된다. 특정분야의전문가나기술수준이높은사람에대한필요는계속존재할것이다. 이는이러한사람들을훈련하고평가할 기관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학습의해방이라는것이학술기관이나전문가양성소의폐지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이기관들은비계급적이고비권위적인방식으로재구성하는것이다. 그렇기에이기관들은(길드나생디칼에입각하여조직되고) 전문가들의지도나, 관료기구를필요로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경향을상쇄하는구조들이있을것이기때문이다. 물론사실이러한전문가들에 대한필요가그렇게많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아나키즘의목적은국가와자본주의에대한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는것이고, 인민은한순간에파괴불가능하고, 완전히균형잡히고, 완전히합리적이되지는않으니까말이다.

여기에서저기까지

우리가오직대안적관계를건설하는것으로만국가를붕괴시킬수있다는개념은복지주의주도권문제에중요한시사점을준다. 이것이상호부조와협동의원칙에

[직접행동]은 각각의 개인이 스스로에 내재된 숨겨진 힘을 깨워내고, 자신감과 자기주도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이 사회의 통제력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다. 직접행동은, 간단히 말하자면, ‘효과성’이나 ‘대중성’과 같은 잣대로 수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전술’이 아니다. 직접행동은 도덕적 원칙이고, 이상이며, 감수성이다. 직접행동은 우리 삶과 행동과 전망의 모든 영역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국가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약화시키고 자지배와 복종의 체계를 위한 물질적, 심리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가 복지사회와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가 된다.

사회복지와 아나키스트적 대안

국가의 존재가 복지사회와 공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가 없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다. 국가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아래와 같다.

- 복지문제의 규모
- 광범위한 협력의 필요성
- 전문성의 필요성

하지만 이 영역들 역시 아나키스트적 대안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복지문제가 거대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현재 경제체제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국가복지역시, 이 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문제를 완화할 수 없다. 이미 명시한 것처럼 계급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의 불평등을, 자본주의가 환경에 행하는 잠재적으로 끔찍한 효과들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더하여 만약 국가주도 복지가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제와 동치된다면, 그리고 만약 사회통제가 참된 복지의 안티테제라면, 대규모의 국가적 복지가 매혹적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장기적으로는 반생산적이라 여겨져야 한다. 인민의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그들이 복지를, 타인의 지시를 받아들이게 해서 안 된다. 복지에 관한 많은 문제들은 국가적 층위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개인이나 공동체의 층위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인간복지 필요의 거대한 규모는, 그를 쪼개어 보면 작은 필요의 총합인 것이고, 지역 층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아나키스트들은 조직이나 협력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코윈의 연방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이 코윈들은 인간이 그 조건에 대한 최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 연방을 통해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와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호부조적 공동체가 그 요체로써 최소의 기초적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상정할 때, 복지제공의 최소기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적이어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납세자’들이 쉽게 ‘수혜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

튜더와 스튜어트 왕조의 구빈법은 소규모 농촌 공동체에는 알맞았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발흥과 농촌 공동체의 전통적 구조를 파괴한 도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등장 전까지 빈민구제의 기반이 되었다. 1832년의 개혁법에 따라 권력을 쥔 산업자본가와 기업가계급은 통제 가능한 인적 자원 풀을 요구했다. 그들에게 ‘지역 교구의 빈민구제에 근거한 구제제는 노동자를 과잉보호하고, 납세자의 소중한 자원으로 노동대중에게 경쟁의 바람을 피할 방도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831년의 구빈법 개정안은 그 악명 높은 구빈원을 중심으로, 더 공공연히 가혹한 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산업도시의 급격한 확대는 공중보건의 위험과 범죄율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는 1848년의 공중보건법, 1856년의 경찰법, 그리고 보건, 교육, 고용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복지입법을 불러왔다.

1890년대에는 이전의 입법적 조건, 노동자계급 조직의 압력과 국가적 퇴보에 대한 공포가 결합하여 다양한 정부 행동에 대한 요구로 드러났다. 비스마르크는 복지개혁을 통해 노동계급 운동을 자본주의 체계 안으로 혼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보어전쟁 징집병들이 보여준 끔찍한 위생상태와 독일과 미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의 패배가 초래한 세기 말적인 불확실성은 부패한 사회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를 촉발했다.

이와 같은 국가적 개입에 대한 요구는 20세기 초의 자유주의 정부들이 산재보상, 국가교육과 급식, 노령연금, 아동노동제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등 사회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법령들을 통과시키게 하였다. 이러한 개혁 확대를 통해 영국은 1911년에 이르러 초기 국가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체계를 만든 이유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이야기된 바자선 활동과는 크게 관계가 없음을 분명했다. 현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외부적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야말로 자유주의 개혁의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의 성질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 국가적 개입의 지속적이고 양질적인 증가에 적응함에 있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정부들은 중앙집권에 반대하고 질서를 거부한다 여긴 기구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철폐되었고, 지역 교육청으로 대체되었다.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던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로 대체되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자유주의적 개혁은 국가주도 복지의 핵심으로 남아 있었다. 2차 세계대전기에는, 공공 생활의 모든 영

역이국가의통제아래로들어갔다. 이처럼높은수위로진행된중앙의통제와전후 노동당정부들의성립은복지국가가다음단계로진화하게끔하였다.

전후복지국가

우리가지금아는것과같은복지국가가좌파의비호아래성립한것은우연이 아니다. 사회주의운동에는국가를지향하거나, 국가를거부하는두가지조류가있었다. 하지만이중권력을잡은것은페이비언협회와사민주의자들의국가주의였다. ‘사민주의개량주의자들과혁명적사회주의자들은시장의아나키를관료적합리성으로대체하고자했다.’ 사회주의는사회경영과연관되기시작했고, 자주경영을향한투쟁은지엽적인것이되어갔다. 사회주의적신념은국가적자원의합리적관리와이를위한산업의대규모국유화전술에관한것이되었고, 영국좌파의핵심적이념이되었으며, 강한중앙정부의정치적통제의필요성에관한믿음이되었다. 2 차 세계대전중만해도노동운동의서로다른조류들은서로갈등하고있었지만, 1 차 대전전기에존재하던조합주의등반국가조류는 1940 년대에그힘을소진했다. 1945 년에는, 노동자의주권의제는페이비언사회주의였다. 이것은과학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전문가들의승리를알리는신호였다. 전쟁중의기술적진보와비상시국에서강화된관료구조는그이전에는꿈도꾸지못했던단계의정도의사회통제가가능하게끔하였다. 케인즈주의적수요관리는경제를통제할수단을제공한것처럼보였고, 사회주의자들에게는그것이자본가들을저지하는수단으로보였다. 앤서니크로스랜드에따르면, 국가는더이상단순한자본가의집행위원회라볼수없으며, 이제는 (사회적) 국가로써스스로의방침을결정하고있다고말한다. 전후호황과개입주의적미국을등에업고사회자본주의의가능성은모두에게 소비를지시하는복지시스템을위해수요를신장하는소비사회를제공해주었다. “복지국가는자본주의의재생의전제조건이었다. 복지국가안에서자본주의는새롭고유익한모습으로보일수있었다. 자본주의는더이상엄격한관리자가아니라 모든좋은것의제공자로보였다..”

필요충족자로서국가의역할이증대하면서복지는모든것을망라하게되었다. 여전히복지는위로부터집행되는것이었고, 복지국가는업격한하향식구조였다. 하지만심지어노동계급의주거구역이‘적절한생활을만들기위한전문가의아이디어’에따라철거당하는와중에도, 사회통제적요소들은다소불명확해졌다. 국가는모두를위해무언가를제공할수있었다. 이에대한대가는총체적행정사회의비자유였다. 하지만, 마르크제가지적한것처럼‘정신과지식은필요의충족에만하는요구물이야기하지않는다.’

전후호황이끝났을때, 복지국가의낭비에대한문제가공개적으로질의되었다. 사회민주주의적국가에대한요구의증가는국가를경제적으로불안정하게만드는것처럼보였다. 그이유는역설적으로요구충족이라는동일한이유에기인했

국가를고발한다.

우선제기하고싶은것은, 국가는정적이지않다는것이다. 국가의현재위치는지역의자주성을흡수하고, 엘리트집단의입지를강화하면서연어진것이다. 이러한파괴적역동성을벗어나서존재하는국가는없다. 1970 년대의스웨덴을희망하는복지국가의수호자들조차도‘행정적효율’을위해지방정부의역할을잘라낼수밖에없었고, 이는지방자치에직접참여할가능성의축소를수반하였다는것을인정할수밖에없다. 그리고이는그들이대변하는세력으로부터권위를부여받아높은지위와수익과계층적지위를즐기는엘리트들의성장을촉발한다.

하지만, 아나키스트들은국가의본질에대해비판하는것만큼이나국가가대변하는것에대해서도비판한다. 우리는국가가권력관계, 계급체계, 제도적폭력에기반한하향식조직의전형이기에국가에특정한공격을가한다. 그리고우리는국가가아나키스트들이공격해온권력관계와지배의체계의존재를지지하기에국가를공격한다. 아나키스트들의궁극적인목적은모든권력관계가철폐된사회, 혹은‘아나키’를건설하는것이기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국가를무언가특별한것으로바라보지않고, 오히려권력관계의체계가현현한것이라바라본다. 그렇기에아나키스트들은국가를무너트리는유일한길은다른관계를건설하는것이라바라본다. 역으로말하면, 국가가존재하는한‘자유로운’사회는있을수없다. 국가의존재자체가다른사회적권력관계들의존재를정당화하기때문이다. 그렇기에아나키스트들에게있어참여와탈중앙화의의상은, 그것이얼마나유의미하거나중요한지와는무관하게, 그자체만으로는불충분하다. 단지, 그것은국가의대안을묘사하는데핵심적인요소들일뿐이다.

사회를어떻게정의하더라도, 사회적계급체계에서특권을가진자들뿐 아니라, 그모든구성원을보살피고행복한삶을이룰역량은그정의에서빠져서는안된다. 그렇기에복지는다시사회적부가가능이아닌사회의본질적인부분이되어야한다. 이는사회가그무엇보다도복지를제공하기위해조직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아나키즘은공동체구성원에대한일상적복지의제공을다시공동체에돌려주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로써복지는다시체계나체계안의노동자들에게제공되는기능이아니라, 공동체와인민들의일상의일부가될것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복지는개인들이스스로를발전시키는방식이될것이다. 복지는학습의과정이자성장의과정이다. 이과정을통해우리는고령자, 연소자, 아픈자, 죽어가는자를젊고역량있는사람들의시야에서치워내는것이아니라, 사회안에포괄하는방법을학습할수있을것이다. 이과정을통해우리는전문가와기구에기대는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의복지적필요에대한인식을심화시키고, 그것을충족하는방법을알아낼수있다. 사회복지에있어직접행동은미래의자유롭고생태적인사회를건설하는데핵심적요소다. 그리고이러한사회를만들고자하는모든운동의핵심적교리가된다.

인들이에게매혹적으로다가온다. 페미니스트들이나, 생태주의자들이나, 국가를지지하지않는좌파들은복지의우선고려사항을비용과중앙계획이아니라참여로돌리는것이그제공을크게증진시킬것이라고제안해왔다.

참여는실질적이고잠재적인복지체계의사용자들과다른시민들이복지의발전과조직, 운영에개입하는것이다. 이것은복지의탈중앙화지역화라는필연적귀결을낳는다. 현실적으로, 복지에의참여는지역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지역보건소에서, 지역학교에서, 지역부동산에서, 지역사회서비스사무소에서, 아니면오래된방식으로, 민중의집에서말이다.

유사한맥락에서, 복지분배의중산계급편향에대한최초의비평가중한명인브라이언아벨-스미스는아래와같이제안한다.

“우리는병원을현대적방식으로새로지을수있을것이다. 골목마다침상몇개를가진외래진료소나보건소를짓는방식으로말이다. 우리는정신적결핍을초래하는공동주택을철거하고작은방을가진새로운빌라를지을수있다. 우리는고령자를위한기관들을철거하고그들에게적당한집을제공할수있다. 우리는장애를가지거나, 나이가들거나, 아픈이들을위한재택근무를제공할수있다.”

그리고이것이복지를사회통제의구속복으로부터해방하여그수혜자들의손에줘어주는첫단계가될것이다. 참여를위한전술은이미오래전부터존재해왔다. 자본주의아래에서, 그자원을국가에의존하여기능해야한다는것때문에활성화되지못했을뿐이다. 하지만식량배분, 주거, 생산, 서비스제공이협동을통해가능하다는수많은예시들이있다. 자체건설주거는항상있어왔다. 실험과지역사업체는항상있어왔다. 지역자치위원회도, 임차인운동도항상있어왔다. 자기조력그룹도, 각병원별로이루어지는보건복지의참여실천도항상있어왔으며, 자유의지주의적교육에대한실험과, 여성의쉼터나여성전용보건소도있어왔다. 이러한공식적실험에더하여, 현실적으로대부분의돌봄노동은국가바깥에서, 주로여성에의하여, 무급이거나저임금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공식적이고비공식적인복지약정의해생성된환경은그자체로유익하다. 그것은제공하는값비싸고질나쁜관계가아니다. 이는특히보건분야에있어적용될수있다. 고령자, 정신질환자, 말기환자들은수용시설에치워져‘전문가’의의견에의존하는것보다공동체가가족과함께할때더행복할수있다. 또한돌봄받는사람에게정확하게그이득이간다는것외에도, 기관의해체는그곳에서일하는돌봄도농자들에게도도움이된다. 콜린워드는“기관의직원들은그수용자들과마찬가지로피해자이다”라고말한바있다.

이참여적이고탈중앙적인접근이야말로지난백여년간국가의힘이커지는것을비판해온아나키스트들에게와닿는것이다. 하지만이접근이아나키스트들이 선호할만한것이고, 현재의중앙집중적이고전문가편향적인체계보다더발전된체계이지만, 많은논객들. 심지어탈중앙화의지지자들마저도여전히선호하는국가의지속적이득에대해회의적이여야할이유는분명히있다.

다. 하지만복지국가가위기에놓였을때, 1970 년대에노동당이사회민주주의를구원하기위해기구화해둔위기관리기제가작용했다. 그리고보수당정권은복지국가를철폐하는것이아니라요구충족에대한요구를특정한, 사회적으로더가치있는구성원들에게제한하려했다.

결과적으로사회복지의모든측면에서사회통제의요소들이더명확히드러나게되었다. 공격적출산감의시도가실패하는와중, 국가는점점더많은부를사회의더부유한영역에집어넣고있었다.(그러면서사회의빈곤한영역은도덕적십자군들을이용해공격하고있었다.) 이는복지기금을편모가정에부하를늘리고, 남성을다시금경제적생산자로돌려놓려는시도에서광장히명확하게드러났다. 복지의제공자(납세자)들과복지의수혜자들을분할하는체계는부가집중되면될수록더욱명확해졌다. 중산계급은공고해졌고, 복지체계는경제적으로지속불가능해보였다.

사회통제의요소가점점더명확해진것만큼이나, 복지국가라는개념이그창조자들의꿈을충족하는것이실패로돌아간것도더명확해졌다. 국가가복지의제공자로존재하는것의효과에대한문제를더는해보도록하자.

복지국가의효과

영국에서의복지국가개념은전후사회민주적합의의최대성과이자 1930 년대라불리우는벌거벗은자본주의의야만성으로부터의탈피라불리운다. 복지국가에대한충배는너무나도광장해서, 정확히얼마나복지국가가효과적인가? 복지국가가평등을촉진하는가? 복지국가가정말로부의분배에영향을주고있는가? 같은질문을던지는것마저어렵다. 그리고지난 20 여년간이영역에대한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질문에대한명확한답을찾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이질문에답하는것을어렵게하는것중하나, 선호를선호와비교하지않는것이다. 전술한것처럼, 전후세계는많은지점에서전쟁전의세계와달랐다. 자본주의는소비주의로재구성되었다. 산업은국유화되었다. 정부가경제에개입하기시작했다. 국가관료제가성장했다. 기술, 직업적엘리트가만들어져서고수익과높은명성을누릴수있었다. 경제의영역에서, 부의총량이증가한것은분명했다. 하지만복지국가의등장이그분배에기여했는가는불명확하다. 예를들자면, 1924 년 3/4 분기에서 1951 년 2/4 분기까지하위 80% 의대중은그들의부를 2.5 배증대시켰지만, 이것이복지국가의재분배적효과에근거한것인지는말하기어렵다. 실제로, 이후 20 년간이지표는크게변하지않는다. 이시기는전후복지국가가부의분배에진지하게도전하였다여겨지는시기인데말이다. 르그랑은 1980 년영국에서하위 50% 의인구가차지하는부의비중은 1949 년과차이가없다고 주장한다. 다르게말하면, 설혹빈자의삶의질이증대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은파이가커져서이지, 파이외의분배가개선되어서는아닌것이다. 빈부의격차는줄어들

지않았고, 인민들은자신의계급체계에머무는경향을보였다. 로이스브라이슨은 이에대하여“이는마치인민들이천천히움직이는에스컬레이터에탄것과같다”고 말한다. 만약국가주도복지가일말의재분배효과를가졌다면, 이것은부자에게서 빈자로재분배된것이아니다.

가장부유한인구에서조금덜부유한인구로의부의재분배가지속적으로, 유효하게진행되었다는것은분명해보일지몰라도, 빈곤한인구는상대적으로그재분배의대상이아니었다. 부의재분배의요체는가장부유한사람들로부터조금부유한사람으로의재분배였다.

1984년까지, 상위 10% 가시장의부중 53% 를소유하고, 하위 50% 가 6% 만을소유하고있었다.

지난 15년간, 영국에서가장빈곤한사람들의입지는점점악화되었다는것이 사실이다. 사실, 우파가주장하는바‘낙수효과’가모든이를더나게만들것이라는 이론에대한반례는충분하게많다. 하지만이에대한비판은여전히단지국가복지 예산을증대시키는것으로만제시되고있다. 이과정에서복지의본성이무엇인지에대한질문은자연스럽게배제된다. 무주택가정의수가 93,000 가정으로늘어나고, 기초생계보장선이하의소득을가진사람이 300 만에근접하고있는것은비극이지만, 더충격적인통계는, 1979년의보수당집권전, 30년의국가주도복지의시기에도여전히 56,750 가정의무주택자가, 2,090,000 명의기초생계수급자가있었다는것이다.

로이스브라이슨의책 < 복지외국가: 누가수혜를받는가? > 는국가주도복지의분배효과에대한연구의개괄을담고있다. 영국뿐아니라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랄라시아등의복지에대한연구를조망하면서, 국가주도복지의대부분의영역에서더부유한사람들이그렇지못한사람들보다더많이수혜를받는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특히건강보험과‘그수혜가소득에가장체계적으로상관되는공공성’이라불리는교육등에서더욱크게드러난다. 그리고건강보험의경우, 영국에서빈자가부자보다보건문제에있어더고통받는다는것을보여주는다양한보고서들이존재한다. 성과연령을막론하고, 계급간의사망률이크게차이가난다. 비숙련육체노동자들의아이들은태어나서생후 1 개월까지의기간동안, 전문직의아이들보다두배의영아사망률을가진다.

건강보험에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가장상위에있는그룹이하위그룹보다 10% 더많은국민건강보험수혜를받고있다. 이불평등은주거의영역에서도드러난다. 공공주거는더가난한사람들에게주거보조를제공해주었지만, 세금을통해효과적으로부유한주택소유자들에게편향된체제를유지한다.

르그랑은이와같은불균형이다음에근거한다고말한다.
부유층은사회서비스를이용할시간이많다.
부유층은이러한서비스들을전용할능력이있다.(특히교육의영역에서)
부유층은주어진사회서비스를이용할가능성이높고, 예산삭감에직면하더라도그것을유지할수있다.

마지막부분은지난 15 년여간정부가진행한국가주도복지에대한공격을생각하면더욱의미심장하다. 빈자들은복지국가에서상대적으로조금밖에받지못했고, 퇴보의시기에그들은그나마받고있는것이라도지키기위해투쟁해야했다. 브라이슨은사회학적으로, < 마태오가전한복음서 > 에서따온바, 마태오의원칙이라이를명명한다. ‘가진사람은더받아넘쳐나게되겠지만못가진사람은그가진것마저빼앗길것이다.’

브라이슨은서비스제공뿐아니라재정적지원이나직업적보조에대해서도이야기한다. 브라이슨은각기다른방식에따른실질적효과는국가와시대에따라다를수있을것이라언급하면서도, ‘세금체계의복잡함을파고들면, 재정적복지, 직업적복지, 사회적복지모두가마태오의원칙에부합함을알수있다. 필연적으로이모든형태의복지체계는현재의사회적계급체계를강화한다.’고말한다. 그렇기에복지국가가사회정의와부의재분배에긍정적으로기여했다고주장하는것에는의문이가해진다. 복지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국가개입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는광범위한견해에는사실상근거가없다. 오히려국가는현존하는계급체계를유지하고, 가난한이들을사다리의아래에두기위한노력을계속해왔다. 이것은우리에게사회복지를재건하기위한진정한시도는국가의바깥에서구성되어야한다는, 국가주도사회복지의대안으로향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복지외아나키

국가에대한반대 - 우파? 좌파?

지금까지나는국가주도복지의요체는사회통제임을, 그리고국가복지는그것이약속한바, 평등과부의재분배를신장하지못함을이야기해왔다. 만약우리가국가주도복지가망령임을인정한다면, 그대안은무엇인가? 우파, 혹은‘자유시장주의자’들은흔히국가가시장기능을자유롭게두어야한다고주장한다.(자유시장주의자들이나아나키즘적자본주의자들은국가를철폐해야한다고주장한다.) 부를가진자에게는모든것이허용되어야하고, 이에대한정부의개입이(혹은정부자체가) 없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상태가어떠한형태로라도복지를유지하는데충분한수단을제공하지 못할것이라는추정은충분히근거가있는것이다. 복지는가격에의한분배를지향하는현존시장체계를악화시킬것이기때문이다. 이에더하여계약되지않은이윤추구는아마도생태적으로올바른사회적, 경제적체제를만들지못할것이며, 현재의환경파괴의수준은여전할것이고, 심지어더심해질수도있다.

또다른대안은수혜자참여와노동자민주주의의증대를통해복지에있어국가의이득을최소화하는것이다. 다르게말하면, 국가로부터통제력을되찾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은사회복지문제의해결책이더많은재원에서온다는것에회의적